

에세이리뷰가 가장 많이 교정한 Error 모음

2016 에세이리뷰 고객 리포트

인사말

안녕하세요,

2016년 에세이리뷰는 9,000명 이상의 고객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12,000,000단어를 교정하였습니다!

에세이리뷰의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고객님들을 위해 에세이리뷰에서 한국인들이 자주 실수하는 철자, 문법, 구두법과 문체 오류를 분석하여 **도움이 될 정보와 팁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자료를 통해 한국인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영작 오류와 이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료를 통해 영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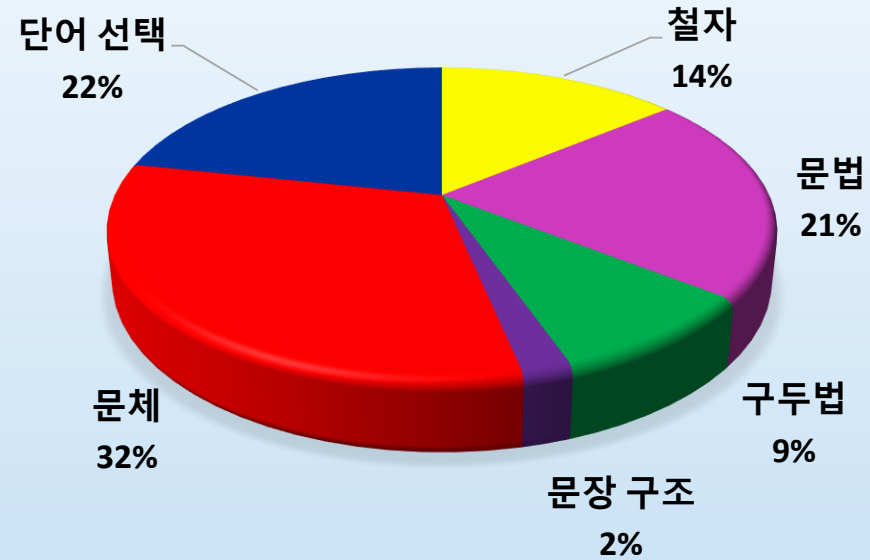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에세이리뷰

"It's much more helpful than I expected. The editor eliminated all the Chinglish and responded to me quickly. You can learn a lot if you compare the draft before and after the edits. It gets harder to improve English when you reach a certain level because it's no longer basic grammar problems but native writing style issues. That's when it's better to have professionals guide you through."

-- Chen Hsi Lee

오류 유형



퍼센트가 나타내는 정보는?

- 문체: 3.8 오류/페이지
- 단어 선택: 2.6 오류/ 페이지
- 문법: 2.59 오류/ 페이지

평균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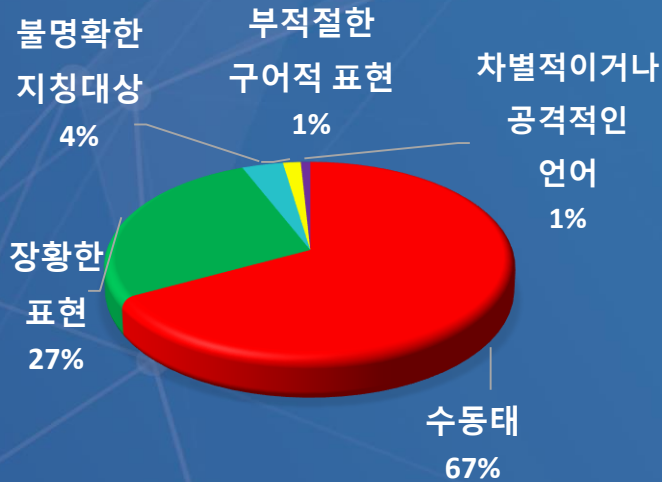
- 문맥상의 철자: 1.69 오류/페이지
- 구두법: 1.1 오류/페이지
- 문장 구조: 0.25 오류/페이지

- 한 페이지를 대략 250단어로 가정하였습니다.
합계: 12.03 오류/페이지

"The precise revisions and comments were very informative and helpful. Additionally, the revisions focused on natural sentence flow and editing to ensure appropriate word usage for the given context."

- Yong Rae C., Researche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1. 문체



정의

- 수동태: 주어가 어떤 동작의 대상이 되어 그 작용을 받는 “동사+과거분사”의 서술 형식.
- 장황한 표현: 매우 긴 문장 혹은 더 적은 단어로 대체될 수 있는 불필요하게 긴 문구 (20-30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
- 불명확한 지칭 대상: 대명사 혹은 한정사가 지칭하는 대상이 불분명할 때. 예: “Joe gave Mark his book.” “His”는 Joe 혹은 Mark 둘 다를 지칭할 수 있음.
- 차별적인 혹은 공격적인 언어: 성별에 국한되거나 일부 문화권에서 모욕적일 수 있는 인종, 종교, 성별 및 정체성과 관련된 언어의 사용.
- 부적절한 구어적 표현: 격식적/학술적 문서에 적합하지 않은 일상적인 단어 혹은 구절.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체 오류:

1. 수동태

- 에세이리뷰가 분석한 모든 연구 논문 중 29.5%, 유학 지원 문서 중 56.4%의 문장이 수동태였습니다.
- 수동태의 경우 능동태보다 독자들을 덜 사로잡습니다. 때문에 유학 지원 문서에서는 최대한 능동태를 사용 해야 합니다.
- 수동태를 능동태로 수정하기 위해서는, 주어를 찾고 문장을 재구성하여 “주어+동사+목적어” 순서로 되어 있는 능동태 문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오른쪽의 예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장황한 표현 (wordiness)

- 문서의 장황한 표현은 주로 불필요하게 긴 구절과 명사화 때문에 발생합니다.

3. 반복 (장황한 표현에 속함)

- 동의어 (synonym)를 사용하시거나 중문(compound sentence)과 같은 다양한 문장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글의 논조와 맥락에 맞는 대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문장의 “synonym”을 대신하여 X“surrogate words”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Quick Tips

수동태:

X The speech **was given** by the mayor.
→ ✓ The mayor **gave** the speech.

X Noun2 + “be” + past participle of Verb + by + Noun1
→ ✓ Noun1 + Verb + Noun2

장황한 표현:

X in addition to
→ ✓ als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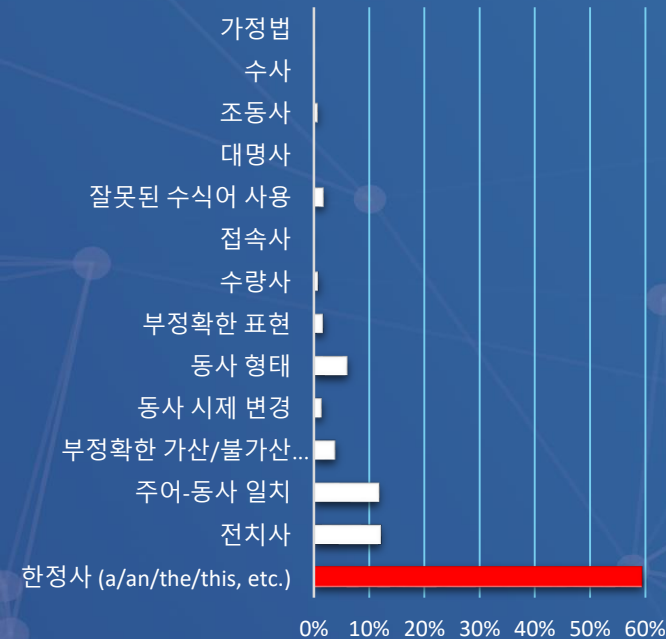
X take into consideration
→ ✓ consider

반복:

X I like **the house**. The **house** is on a hill.
→ ✓ I like **the house** on the hill.

장황한 표현을 줄이는 방법 알아보기: [여기](#)를 클릭하세요!

2. 문법



정의

- 한정사: "this," "that," "every" 등과 같은 관사와 기타 수식 문구.
- 동사 시제 변경: 전체 문서에서 일관성 없는 동사 시제의 사용.
- 부정확한 표현: 부적절한 관용 어법 사용.
- 동사 형태: 동사의 올바른 형태 (예: 과거 분사, 동명사 등).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법 오류 :

1. 관사/한정사 사용 (A/ An/ The/ This/ That, etc.)

- 고객님들의 문서에서 발견되는 **문법 오류의 62%**가 관사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a," "an," 및 "the"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사를 잘못 사용합니다.
- **가산 명사**: 셀 수 있는 명사 (예: apples 및 ideas).
 - 일반적으로 가산 명사의 경우, 복수+ NO 관사의 문장 형태를 취합니다. 가산 명사를 처음으로 사용할 경우, "a" 혹은 "an"을 사용합니다. 그 후에, "the," "this," 혹은 "that"을 사용합니다.
- **불가산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예: research 및 water).
 - 불가산 명사를 처음으로 사용할 경우, 관사를 생략합니다. 그 후에 "the," "this," 혹은 "that"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일부 관용구는 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전치사

- 언제 어느 전치사를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없습니다. 일부 동사들은 여러 개의 전치사와 함께 사용됩니다. 어떤 전치사를 사용해야 할지 모를 때는 사전을 찾아보세요.

3. 주어-동사 일치

- 사용한 동사가 주어의 단수/복수와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Quick Tips

가산 명사:

✗ The apple is delicious.
→ ✓ Apples are delicious.

✗ I read the new book. The book was fascinating. → ✓ I read a new book. The book was fascinating.

불가산 명사:

✗ The water is healthy for you.
→ ✓ Water is healthy for you.

✗ I bought the water yesterday, and now I will put the water in the fridge.
→ ✓ I bought water yesterday, and now I will put the water in the fridge.

관용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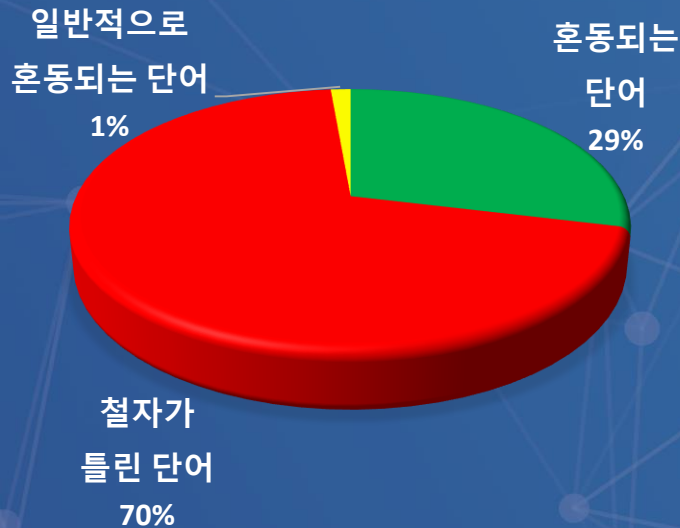
✗ Let's have a lunch.
→ ✓ Let's have lunch.

주어-동사 일치:

✗ Joe and his cat Snow lives by the lake.
→ ✓ Joe and his cat Snow live by the lake.

정확한 관사 사용법 알아보기: [여기](#)를 클릭하세요!

3. 철자



정의

- 혼동되는 단어: 문맥에 맞지 않는 부정확한 전치사의 사용, 관용구에서 잘못된 단어 사용, 비슷한 철자를 갖는 단어 혹은 동음이의어와 혼동.
- 철자가 틀린 단어: Merriam-Webster와 같은 표준 영어 사전에 나온 철자를 따르지 않는 단어.
- 일반적으로 혼동되는 단어: 영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혼동되는 250단어 목록에 근거함 (예: then vs. than).

가장 흔히 발생하는 철자 오류:

1. 철자 오류

- 일부 철자 오류는 오타 혹은 모음(vowel)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미국 영어 사전 Merriam-Webster를 통해 단어의 철자를 확인하세요 (여러 단어들이 나타난다면 처음 나타나는 철자를 사용하세요).
- **하이픈으로 연결된 수식어 (철자 오류의 주 원인)**
 -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하이픈을 사용합니다.
고유 명사에 하이픈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 수식어가 여러 개 나열되어 문장을 불명확하게 만들 경우에는 하이픈을 활용합니다.
 - 어떤 절의 경우에는 항상 하이픈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사전을 참고하세요.
 - “Very”와 -ly로 끝나는 부사는 절대로 하이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ex-,” “mid-,” 및 “re-”와 같은 접두사는 하이픈이 필요합니다.

2. 동음이의어에 유의하세요!

- 많은 분들이 동음이의어 (비슷하게 발음되는 단어들)와 철자가 비슷한 단어들을 헷갈려 하십니다. 교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더라도 동음이의어 오류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영어 교정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영어 단어 및 철자 오류 알아보기:

[여기](#)를 클릭하세요!

Quick Tips

철자:

공식적인 철자를 확인하시길 원하신다면 Merriam-Webster (m-w.com)를 확인하세요. 한 개 이상의 철자가 나올 경우 처음 나온 철자를 사용하세요.

하이픈 연결:

✗ The 10 years old girl likes chocolate.
→ ✓ The 10-year-old girl likes chocolate.

✗ The girl is 10-year-old.
→ ✓ The girl is 10 years old.

하이픈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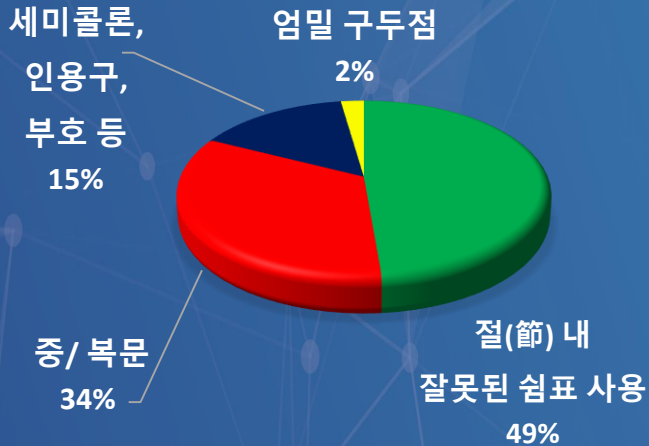
“Tall window maker”와 “tall-window maker”는 다른 의미입니다. 앞의 구절에서 “tall”은 window가 아닌 maker를 수식합니다.

동음이의어:

가장 일반적으로 혼동되는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than/then;
- (2) affect/effect;
- (3) lay/lie;
- (4) they/their/they're.

4. 구두점



정의

- 중문: 1 개 이상의 주어와 술어를 갖는 문장.
- 복문: 적어도 하나의 종속절을 갖춘 문장.
- 종속절: 주절에 정보를 추가하는 역할을 하는 절/문장; 일반적으로 접속사로 시작함.
- Closing punctuation (엄밀 구두점): 인용되거나 삽입 어구로 삽입된 문장의 끝에 위치하는 구두점.

가장 흔히 발생하는 구두점 오류:

1. 절(節) 내의 쉼표 사용:

- 주문(主文)과 도입구를 구별 짓기 위해 쉼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 비교문에서 “than” 이전에 쉼표를 삽입하지 않습니다.
- 괄호로 묶여질 수 있는 구절에서는 쉼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의: 한 문장 중간에 서술적 구절을 삽입하는 경우 쉼표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앞에는 쉼표가 없어야 합니다. 예시: I went to the store, which was along the river, and bought some cookies. [상기 예시에서 주문(主文)은 “I went to the store and bought some cookies”입니다].
- 년(年)과 달(月) 사이에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중문 (Compound sentences): 중문의 주어 혹은 목적어 사이에는 쉼표가 없어야 합니다. 아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 “A and B do C.” 동사 앞 주어들을 따로 떼어 “A does C”와 “B does C”로 문장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나뉘진 구절이 어색하지 않다면, A와 B 사이에 쉼표를 삽입하면 안됩니다.
- “A does B and C.” 동사 B와 C를 따로 떼어 “A does B”와 “A does C”로 문장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는 쉼표가 필요 없습니다.
- “A does B, and C.” 먼저 쉼표를 사이에 두고 문장을 나눠봅시다. “A does B.” “C...” 올바른 문장이 형성되나요? 아닙니다, 따라서 쉼표를 제거해야 합니다!
- “A does B, and C does D.” 쉼표를 사이에 두고 문장을 나눠봅시다. “A does B.” “C does D.” 두 문장 다 올바른 문장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쉼표가 적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콜론과 세미콜론 사용법 알아보기:[여기](#)를 클릭하세요!

Quick Tips

도입구:

~~X~~ In the beginning I was hopeful.

→ ✓ In the beginning, I was hopeful.

비교문에서 “than” 이전에 쉼표 사용:

~~X~~ I work harder, than Mike does.

→ ✓ I work harder than Mike does.

수식 구절의 사용:

~~X~~ I unlike the other campers was not afraid to cross the old rope bridge.

→ ✓ I, unlike the other campers, was not afraid to cross the old rope bridge.

날짜:

~~X~~ January,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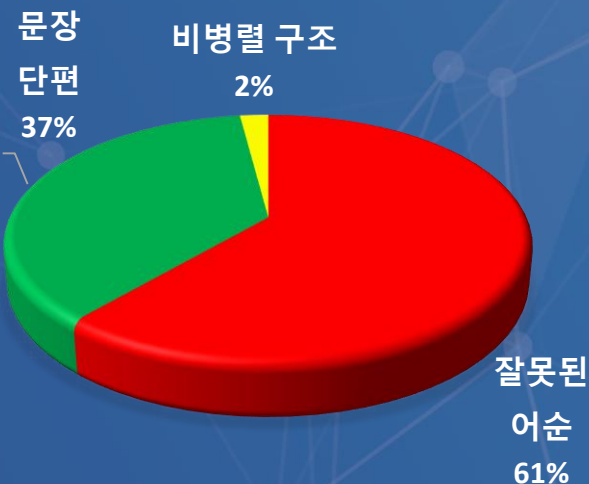
→ ✓ January 2017

중문:

~~X~~ I like to read many books, and write fantastical tales.

→ ✓ I like to read many books and write fantastical tales.

5. 문장 구조



정의

- 잘못된 어순: 문맥에 맞지 않는 부정확한 전치사 사용, 관용구에서의 잘못된 단어 사용, 비슷한 철자를 갖는 단어 혹은 동음이의어 간의 혼동.
- 문장 단편: 미완결 문장 (주어 혹은 술어 생략).
- 비병렬 구조: 단어, 구절 혹은 절이 나열되어 있지만 비슷한 문법적 형식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장 구조 오류:

1. 어순

- “일반적인” 문장들은 다음 구조 중 하나를 따릅니다:
 - 주어+ 조동사+ 부정사+ 동사+ 직접 목적어+ to + 간접 목적어.
 - 주어+ 조동사+ 부정사+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2. 형용사 나열 순서:

- 형용사 나열 순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영어 문법: 올바른 형용사 사용법](#)

3. 부사 나열 순서:

- 주어 혹은 절(節) 이전 (일반적으로 짧은 부사 (예: fast), 시간에 관련된 단어 및 전체의 절을 수식하는 부사 구절)
- “to be” 이후
- 동사 혹은 직접 목적어 이후 (부사 대부분이 이에 해당, 특히 “장소”와 “방법”에 관련된 부사일 경우)
- 주어와 동사 사이 (빈도와 관련된 단어 예: often)
- 동사구 중간 (일반적으로 빈도와 관련된 단어). 조동사 혹은 법조동사 (modal verb)가 있는 경우, 빈도수 관련 부사는 해당 조동사/법조동사 후에 위치합니다. 법조동사+ 조동사 혹은 여러 개의 조동사가 있는 경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어+ 법조동사+ 부정사+ 빈도 관련 부사+ 조동사+ 조동사+ 본동사.

4. 문장 단편:

- 각 문장이 주어와 동사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사가 직접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병렬구조 알아보기: [여기](#)를 클릭하세요!

Quick Tips

일반적인 문장 구조:

✓ I have not had to give him my reply.

✓ I have not yet written him my reply.

주어 이전 부사 위치:

✗ I went **yesterday** to the movies.

→ ✓ Yesterday, I went to the movies.

“to be” 이후 부사 위치:

✗ She **always** is late.

→ ✓ She is **always** late.

동사 혹은 직접 목적어 이후 부사 위치:

✗ I did **hastily** my work.

→ ✓ I did my work **quickly**.

주어와 동사 사이 부사 위치:

✗ I work long hours **always**.

→ ✓ I **always** work long hours.

동사구 중간:

✗ We might not have **ever** been allowed to join the club.

→ ✓ We might not **ever** have been allowed to join the club.

에세이리뷰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의 교정 서비스를
최단 9시간내에 제공합니다

에세이리뷰는 2016년 28,400건 이상의 학술 교정 및 번역서비스를 380개 이상의 국내외 대학, 의료기관 및 연구소에 제공하여 다수의 SCI급 해외 논문투고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800명 이상의 고객님들께 7,000건 이상의 대학 및 전문대학원을 위한 에세이/SOP(학업계획서) 영문 첨삭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정 서비스를 받으신 많은 고객들께서 Stanford, Columbia, INSEAD, UC Berkeley 등 세계 명문 대학원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에세이리뷰는 현재도 많은 기관, 고객님들로부터 꾸준한 의뢰를 받고 있으며 특히 대학교, 학회지, 의료기관 및 각종 연구소의 좋은 feedback을 받고 있습니다. (제휴 및 협약기관 :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UNIST, 동국대학교, 한양대학교, 한국형수치예보모델사업단, 한국기계가공학회, 복식문화학회,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등)

에세이리뷰는 단지 유명대학을 나온 원어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에디터를 채용하지 않습니다. 좋은 품질의 영어교정을 위해서는 에디터의 충분한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에세이리뷰는 미국 및 영국 현지 전문 영문 교정 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했던 경력을 가진 각 분야의 원어민 전문가를 현지 영국지사에서 채용하여 타사 대비 합리적인 비용에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00% professional editing! Not only did my editor make necessary changes, but she also explained the reasons for those changes."

--Tang Yu

에세이리뷰

- 100% 교정 품질 보증
- 투고 준비가 된 우수한 품질의 논문
- 평균 5년 이상의 교정 경력을 갖춘 각 분야의 석/박사 전문가
- 최단 9시간내 교정 완료
- 연중무휴 운영

"My editor carefully revised the basic problems, especially my use of singular and plural nouns. My paper was about an obscure discipline, so I was worried that the editing might not come out good, but the results were beyond my expectation!"

--Liu Jia Feng

학술 & 유학지원 교정서비스

교정 문서:

- 저널 논문, 아카데미 페이퍼 및 초록
- 석사/박사 졸업논문
- 리서치 페이퍼
- 학회 논문
- 저널 커버레터
- 이력서
- 유학 지원 서류
- 장학금 지원서류
- 추천서

교정 서비스:

- 어휘선택, 스펠링, 문체 및 문장구조 개선
- 단어 수 축소 서비스 (최대 10%)
- 표준 명문법에 의거한 구두점 및 글자체의 통일성 교정
- 영문으로 이해하기 힘들거나 의미가 모호한 문장에 대한 개선안 제시
- 저널에 맞는 서식(Chicago Manual, APA, MLA, Harvard 등)으로 교정
- 교정 증명서 발급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의 교정/번역 서비스를
최단9시간 내 제공합니다.

전문 에디터

에세이리뷰의 전문 에디터는 각 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가진 원어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세이리뷰의 전문 에디터는 5년 이상의 full-time 교정경력을 갖고 있으며, 해외 우수 학술지에 투고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문서접수 시스템을 통해 연중무휴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된 문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 에디터에게 할당됩니다. 에세이리뷰의 QA팀은 고객의 피드백 및 QA팀의 검토자료를 기준으로 매월말 에디터 평가를 진행하고, 에디터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세이리뷰의 QA팀은 고객님의 교정 서비스에 만족하고 높은 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

- Arts & Humanities
- Biosciences
- Business & Economics
- Computer Science & Mathematics
- Engineering & Technology
- Medicine
- Physical Sciences
- Social Sciences
- Graduate school admissions
- Undergraduate school admissions

"Much faster than I expected. Actually, I received it within 24 hours with so many substantial comments. Great quality and affordable price."

--Kelvin Law